

국민의 새물결 위한 정책지원 보다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글로벌 해양강국!
		배포일	2019. 1. 31.(목)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 과장 명노현, 사무관 이형민 • ☎ (044)200-5310, 5315 • 해양생태팀장 황인서, 사원 손한별 • ☎ (02)3498-7151, 7158	
	해양환경공단			
보도일시		2019년 2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3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앙증맞은 갯벌의 친구, ‘대추귀고둥’을 지켜주세요 **- 해수부,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대추귀고둥’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대추귀고둥’을 선정하였다.

대추귀고둥은 몸 모양이 대추를 닮은 타원형이며 껍질 입구가 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대추귀고둥은 평균 길이가 2.7cm, 지름이 1.4cm로 실제 대추와 크기까지 비슷하다. 대추귀고둥은 주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형성된 갯벌 상부의 갯잔디나 갈대가 분포하는 초지대에 서식하며, 부드러운 흙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는다.

대추귀고둥은 아가미가 아닌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점에서 육지 고둥으로 분류되지만, 염분에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다 고둥의 특징도 함께 보이는 독특한 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영광·강진, 경남 남해, 충남 서천 등 서·남해 일부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으나, 강 하구의 과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에 대추귀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유전정보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추귀고둥의 유전적 다양성과 개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대추귀고둥은 강 하구에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와 해양의 오염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대추귀고둥의 개체수 회복과 보전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켜주세요!! 이달의 보호해양생물

양증맞은 갯벌의 친구

대추귀고둥의 이름은 대추를 닮은 타원형의 생김새와 껍질 입구가 귀 모양을 닮아서 붙여졌다. 대추귀고둥은 평균적으로 높이 2.7cm, 지름 1.4cm 크기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형성된 갯벌 상부의 갯잔디나 갈대가 분포하는 초지대에 서식하며 부드러운 흙 속에 포함된 유기물을 먹으며 산다. 과거에는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추귀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대추귀고둥을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의 전남 영광, 강진, 경남 남해, 충남 서천 등 서·남해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껍질은 황색을 띠며 매우 딱딱하다. 바다 고둥의 특징인 염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지녔지만 공기 호흡을 하는 허파를 가지고 있어 육지 고둥으로 분류된다.



Ellobium chinense

대추귀고둥

우리가 보호해야 할

